



湖南新聞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화순 박순철

지역

7

2019년 2월 20일 수요일

도곡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넓히고 '라이스센터' 신축

화순군, 시설 증축·신축에 12억 지원



화순군 도곡농협은 로컬푸드 직매장 증축과 라이스센터 GAP 도정 시설 신축 공사를 마치고 지난 15일 준공식을 열었다.

2014년 548㎡(166평) 규모로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이번에 2번째 증축을 통해 1110㎡(336평) 규모의 판매시설을 갖추게 됐다. 현재 560개 농가가 출하한 654개 품목을 직거래하는 판매장의 판매대가 부

족할 만큼 판매량이 늘었다. 지난해 매출액은 58억 원이었다.

이번 직거래 매장 증축으로 유통과 판매 환경이 개선돼 매출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은 이번 확장 공사 사업비 8억 원 중 4억 원을 지원했으며, 직매장 신축과 증축에 지금까지 모두 15억 원을 지원했다.

화순군은 지난 2017년 화순군

연합미곡처리장을 인수해 운영하는 가운데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시설인 라이스센터 GAP 도정시설을 신축했다.

신축 사업비는 총 16억 원으로 이 중 8억 원을 화순군이 지원했다. GAP 도정시설 신축으로 서울시 학교급식 참여와 전라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선정 등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화순군은 산지에서 농산물을 가공·출하·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APC), 라이스센터 GAP 도정시설과 미곡처리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농산물 유통 기반시설을 조성해 앞장하고 있다.

군은 지역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해 직매장 등 인프라를 조성·확충하고 지역 농산물의 '고품질·고급화'를 위한 농산물 안전성 검사도 지원한다. 로컬푸드 출하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소포장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담양군, 농업인 식품가공 기능사 과정 교육생 모집

담양군은 경쟁력 있는 가공품 생산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농산물기공 청탁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식품가공기능사 과정을 개설한다.

교육내용은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가공 및 기계 기초 이론교육과 식품가공 전문강사를 초빙해 곡류, 두류, 과채류 가공 실습교육을 진행한다.

필기과정은 3월 5일 개강해 4월 5일까지 매주 화요일 금요일 4시간씩 총 10회, 실기과정은 4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금요일 4시간씩 총 12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28일까지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동양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교육신청은 농업기술센터 경영지원과 농촌지원팀(061-380-3431)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담양=박종영 기자

강진군, '칠량장미' 경쟁력 확보 박차

당심회훼영농법인 조합원, 선진지 견학 진행

강진군 당심회훼영농법인(대표 조우철) 조합원 28명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서울시 일대 AT센터 회훼경매장 및 회훼위탁판매시장, 광주회훼공판장 등을 들며 수도권과 전남권 유통시장 견학을 진행했다.

국내 회훼유통시장의 최근 현황 및 정보를 사전 파악하여 2019년 유통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장미 농업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목적을 둔 이번 견학은 회원들의 열정으로 이틀간 무박으로 다녀왔다. 장미의 종류별 시장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위탁 판매시장의 중매인 면담을 진행하여 '칠량장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판로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칠량면 일대를 중심으로 1995년 결성된 법인은 강진군의 대표적인 회훼단체로 현재 조합원 30명이

15.3ha의 면적에 장미를 재배중인데 평균 한 속에 5~6천원을 호가하며 연간 5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이번 견학에서 회원들은 당일 출하한 장미의 낙찰단가를 직접 확인하고 타지역의 생산비(중증)을 점검하거나 낙찰단가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피아하는데 집중했다. 이어 수도권 회훼 중매인들 면담과 수도권 및 광주 유통시장을 둘러본 후 앞으로 시장 대응전략을 마련할 좋은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

법인의 조우철 대표(58)는 "장미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게 장미 품질을 끌어올리고자 이틀간 잠도 자지 않고 견학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최고의 장미를 생산하기 위해 공부와 연구를 계획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

영암군,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으로 행복 출산



영암군 보건소는 지난 14일 영암읍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를 시작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지역 내 산부인과 전문병원이 없어 불편을 겪어 왔던 입부들을 위해 매월 3회(연

중사업) 둘째주 목요일 삼호읍, 셋째주 목요일 영암읍 넷째주 화요일 삼호장소에서 운영된다.

보포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이 의료장비를 갖춘 견진이동차량으로 산전기본검사를 비롯한 초음파검사, 태아염색체 이상 및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등을 무료로 실시하고 검사결과는 개인에게 통보해 주고 있으며

또한, 임신 중에 엽산제, 철분제, 출산교실 운영, 산전진진 쿠폰 지원

출산 후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등 시기별 맞춤 서비스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산부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으며 임신을 하면 관할 주소지 읍면 보건지소에 등록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받도록 흥보함으로써 임산부를 위한 정책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장흥군, 학교급식에 Non-GMO 식재료 공급

친환경농산물·비유전자 조작 식재료 지원

장흥군은 지난 15일 군청 상황실에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와 올해 처음

추진되는 비유전자 조작(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의 지원단가 및 대상, 공급업체 선정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보육시설 및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일반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유기농 쌀 제조, 과일 등)

대상으로 57개교 3,306명에게 3개 품목(간장, 된장, 두부)의 기공식품을 지원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GMO 식재료를 Non-GMO 식재료로 대체하게 된다.

한동희 위원장은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을 통해 미래의 원동력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와의 계약제 배 확대를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진도군, 치매안심센터 '기억모아 행복쉼터 교실' 운영

인지강화교육 등 치매극복 프로그램 진행



진도군은 지난 1월 21일부터 오는 4월 19일까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극복과 예방을 위해 '기억모아 행복쉼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은 활동준비·활력과 정후 측정을 시작으로 ▲전신스트레칭(중치제조) ▲두뇌쑥쑥! 기억쑥쑥! 인지강화교실 ▲관절과 균형강화 등 신체활동 ▲언어능력, 사고조직훈련 등 인지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전통약기를 통한 리듬감을

익혀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 안정 활동과 미술과 수공예 활동 등 작품을 완성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집단 활동으로 사회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치매안심센터를 작년에 정식 개소하면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쉼터운영 ▲치매상담 ▲치매진단 및 치료비지원 ▲치매노인실종예방사업 ▲조호물품 지원 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도군 보건소 치매관리담당 관계자는 "신체 기능증진활동, 미술, 수공예, 음악 등 인지활동 등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가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 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치매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치매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인지훈련 등 치매 극복·예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군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393.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몇몇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화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체 관리 병행